

〈일반논문〉

## 조선 세종대 『사리영응기』 편찬과 왕실불사의 전통

박 선 경\*

—〈목차〉—

- I. 머리말
- II. 『사리영응기』의 구성과 세종 30년 내불당 불사
- III. 내불당 불사의 진행과 세종의 주요 담당자 임명
- IV. 내불당 경찬법회의 사리이적과 왕실불사의 전통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세종 30년 내불당 불사를 『사리영응기』의 내용을 통해 검토하였다. 내불당 불사에 대해 세종 개인의 신앙에 의한 것이라고 치부하기보다 국초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비해 나가는 국왕으로서 세종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선 초기 공적 영역에서 불교는 축소되어 갔지만 왕권과 왕실의 위상 강화를 위한 불교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세종이 그런 왕실과 불교의 관계를 검토하는데 있어 『사리영응기』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내불당 불사는 세종의 기획 하에 진행되었으며 『사리영응기』의 편찬은 내불당 불사의 마지막 단계였다. 세종은 김수온 등에게 『사리영응기』를 편찬하게 하고 이를 유사에 명하여 금속활자 본으로 간행하게 하였다. 내불당 조영과 경찬법회 사리이적을 기록한 『사리영응기』는 왕실의 불사를 현창하기 위해 편찬된 것이다.

---

\*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세종은 불사에서 담당자 배치 또한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각각의 업무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대군들에게 충감독하게 하였다. 또한 장중하고 신성한 불상 이운 행렬의 중심에는 왕실 구성원들이 배치되었으며 세종은 신곡을 지어 불상을 불당에 안치할 때 연주하도록 하였다. 왕실 구성원을 왕실불사 전면에 내세운 것은 세종의 의도와 관련 깊다. 세종은 대군들을 동원하여 왕실불사를 실행하는 전례를 세자에게 남김으로써 왕실 구성원이 불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통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왕실불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끝으로 내불당 법회에서 연출된 '사리이적'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하나는 세종이 사리가 지니는 상징성을 명확하게 인지하였고, 이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측면은 세종이 태조의 전례를 답습하여 사리이적을 연출하였고, 이로 인해 끊어졌던 사리이적의 전통이 후대에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를 계승하는 모습을 문종에게서도 볼 수 있었다.

□ 주제어

사리영응기, 왕실불사, 내불당, 사리, 대자암

## I. 머리말

세종 30년(1448), 세종은 궐내 문소전 옆에 불당을 세우겠다고 승정원에 뜻을 전하였다. 문소전 옆 불당은 본래 태종이 태조와 신의왕후를 추복하기 위해 창덕궁에 건립한 것이다. 이 불당은 세종 15년 문소전을 경복궁으로 옮길 때 철거되었는데, 16년이 지난 재위 30년 세종이 중창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일로 조정 신료들은 왕의 뜻을 돌리기 위하여 간언과 상소를 끈질기게 이어갔다. 세종은 신료들의 반대에 한 걸음 물러나 경복

궁 담장 밖에 불당을 짓기로 결정하였지만 불당 건립에 대해선 선위를 내세우며 끝내 관철시켰다.

세종은 이렇게 조영을 시작한 문소전 불당(이하 내불당)이 완공되자 경찬법회를 설행하였고 법회 도중에 사리를 얻게 되는 사리이적을 연출하였다. 이 일을 기록한 것이 『사리영응기』로 내불당 조영에서부터 경찬법회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그간 『사리영응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사리영응기』에 수록되어 있는 親制新聲 7곡과 의례에 동원된 악공, 악기 등을 분석한 불교의례 분야의 연구가 있다.<sup>1)</sup> 또한 친제신성에서 대해서는 국문학에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친제신성과 9악장의 주제의식을 검토하여 세종의 의도를 파악한 연구가 제출되었다.<sup>2)</sup>

한편 역사학에서는 세종과 조정신료들의 대립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리영응기』에 전하는 사리이적은 정치적 조작으로, 당시 내불당 조영을 반대한 대신들에게 불사의 정당성을 보이

1) 세종의 친제신성에 관해서 세종이 불교음악을 친제하게 된 동기와 음악의 성격을 분석하여 세종이 불심으로 7곡 뿐 아니라 9악장도 친제하였다는 연구(박범훈, 『世宗大王이 創製한 佛敎音樂 研究: 舍利靈應記를 중심으로』,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집』 6, 2002)와 『삼불예참문』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여 세종 30년 내불당 경찬법회의 불교의식이 예참법회로 진행되었음을 밝혔고 친제신성은 불교제례음악의 필요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이해한 연구가 있다(송혜진, 『『사리영응기』 소재 「삼불예참문」과 세종친제 불교음악』, 『동양예술』 30, 2016). 『사리영응기』 소재 악공을 분석하여 그들의 신분과 소속기관을 검토하였다. 악공은 47명으로 이들의 신분은 관노였는데, 이들 가운데 세조 즉위 이후 공신으로 인정되어 양인이 된 자들도 있음을 밝혔다(김우진, 『『사리영응기』 소재 악공 연구』, 『한국음악연구』 15, 2009).

2) 김기중, 『『사리영응기』 소재 세종의 “친제신성(親制新聲)” 연구』, 『泮矯語文研究』 37, 2014. 이 연구에 의하면 친제신성은 내불당 경찬법회에서 연주되고 불리는 것을 전제로 제작되었고 왕실의 안녕 뿐 아니라 열성의 성불과 중생교화를 강조하였고 또 당시 불교계를 순화 혹은 교정하기 위한 의도가 내재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sup>3)</sup> 그러나 내불당 불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불당 조영과 경찬법회의 실행 목적을 세종의 호불 태도에서 찾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세종이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사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세종의 호불 태도가 지적된다. 세종이 만년에 자신의 병환, 광평·평원 두 대군의 연이은 서거, 소헌왕후의 승하 등 일신상의 불행으로 심경의 변화를 겪어 불교를 숭신하였다고 이해되었다.<sup>4)</sup> 또한 세종을 기본적으로 불교신앙인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불사를 추진하였다는 견해도 제출되었다.<sup>5)</sup>

세종이 불교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유교적 가치관으로 증무장한 조정대신들과 날선 공방을 하면서까지 불사를 추진하는 배경을 온전히 그의 신앙심만으로 환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아 보인다.<sup>6)</sup> 즉 개인으로서의 세종만 강조하고, 국왕으로서의 세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세종대 불교 정책을 재검토하는 연구가 몇 가지 제출되었다. 우선 유교정치를 구현하는 군주로서 불교에 대한 세종의 태도를 이해하는 연구에서는 다양한 세력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sup>7)</sup> 한편 세종이 개인적 숭신을 바탕으로 불사를 추진하였다는 기본적

3) 이정주, 「세종 31년(1449) 刊 『舍利靈應記』 所載 精勤入場人 분석」, 『고문서연구』 31, 2007.

4) 한우근, 『유교정치와 불교』, 일조각, 1993, 178~179쪽.

5) 김종명, 「세종의 불교관과 유교정치」, 『불교학연구』 25, 2010.

6) 국가와 왕실의 불사 실행 배경을 국왕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해석하는 관행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세조대 불교적 상서를 통해 논의된 바 있다(이정주, 「世祖代 후반기의 불교적 祥瑞와 恩典」, 『민족문화연구』 44, 2006 ; 박세연, 「朝鮮初期 世祖代 佛教의 祥瑞의 政治的 意味」, 『사총』 74, 2011).

7) 금장태, 『세종조 종교문화와 세종의 종교의식』, 한국학술정보, 2001, 115~123쪽.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현실정치에서 불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옹호하였다는 입장도 제시된 바 있다.<sup>8)</sup>

또한 세종 대 선교양종을 통합하고 소속사찰 36사를 지정한 개혁에 대해 그 대상은 승정체제에 제한된 것이며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단행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sup>9)</sup> 또 세종 재위 초 祀典을 정비하면서 국상과 제례에서 불교식 의례가 간소화되었으며 왕실불사에서 국가적 요소의 배제를 시도하였다고 이해하는 동시에 세종 당시 왕실불사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서 공존하고 있다고 규정한 연구도 진행되었다.<sup>10)</sup>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세종은 불교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일부 사찰과 승려를 국가제도 틀 안에 존속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유교적 통치이념을 추구하는 조선의 국왕으로서 세종의 불교에 대한 태도를 이해한 연구들은 세종이 내불당 불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세종은 내불당 조영의 제기에서부터 조영의 절차, 참여 인원의 구성, 경찬법회의 진행과 사리이적의 연출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구상하였다. 즉 의식의 모든 절차에 세종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조선 초기 불교는 국가체제 내에서 그 역할이 축소되어 갔지만, 불교가 국왕의 권위를 높이는 데 여전히 유효하였기 때문에 조선 초기 왕실은

8) 부남철, 「세종의 불교신앙과 유교정치」, 『세종의 국가경영』, 지식산업사, 2006.

9) 손성필, 「寺刹의 혁거, 철쇄, 망폐: 조선 태종·세종대 승정체제 개혁에 대한 오해」, 『진단학보』 132, 2019;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 1406년과 1424년 승정체제(僧政體制) 개혁의 이해 방향과 관련하여 -」, 『한국사연구』 186, 2019.

10) 최재복, 『조선초기 왕실불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0, 163~164쪽; 박정미, 『조선시대 佛敎式 喪·祭禮의 실행양상: 왕실의 국행불교상례와 사족의 봉제사사암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45~51쪽.

조종의 유훈을 명분으로 왕실불사를 지속적으로 설행하였다.<sup>11)</sup> 세종 역시 내불당 건립의 표면적 이유는 태종의 유훈을 받드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이유일 뿐이며 세종이 그런 왕실과 불교의 관계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세종이 내불당 불사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한 바를 살펴보면 『사리영응기』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먼저 『사리영응기』의 구성을 검토하여 내불당 불사의 대강을 설명하고, 『사리영응기』 편찬 과정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세종은 이미 치세 후반기에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등 많은 간행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리영응기』 편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up>12)</sup> 다음으로 내불당 불사에 참여한 인원을 분석하여 세종의 담당자 배치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특히 대군들을 불사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끝으로 경찬법회에서 연출된 사리이적을 살펴보고, 세종이 사리이적을 활용한 의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사리영응기』는 세종 대 ‘내불당 불사’라는 한 사례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조선전기 왕실불사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종 대 왕실불사의 일면을 고찰하기에는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조선왕실과 불교의 관계에 대한 양상을 고찰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1)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92~93쪽.

12) 최병현, 「《月印釋譜》 編纂의 佛敎史的 意義」, 『진단학보』 75, 1993, 223~224쪽. 이 연구는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용비어천가』와 불교의 연원을 밝히는 『월인석보』의 편찬에 대해 왕실의 권위와 관계있음을 주장하였다. 본고는 세종의 당대 관심을 왕실 선양에 두고 『사리영응기』 또한 그와 같은 목적에 의해 간행되었음을 논하고자 한다.

## II. 『사리영응기』의 구성과 세종 30년 내불당 불사

『사리영응기』는 甲寅字本<sup>13)</sup>으로 1책 24장이다. 반곽의 크기는 22.0 x 15.9cm이며, 9行 15字이고 註雙行의 주표기가 있다. 대자 본문 말에 ‘承議郎守兵曹正郎金守濫謹記’라고 하여 저자가 金守濫임은 알 수 있으나 찬술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찬술시기에 대해서는 김수온의 관직명과 『사리영응기』의 ‘上之三十有一年’이라는 서술을 통해 그 대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김수온이 병조정랑에 제수된 1449년 1월 이후부터 세종이 세상을 떠나는 1450년 2월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김수온은 내불당 경찬법회에 참여한 승려 信眉의 동생으로 세종 27년 왕명으로 『의방유취』 편찬에 참여하는데 이때 이 일을 감독한 사람 가운데 안평대군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세종 28년 12월 세종은 『석가보』를 증보수찬하게 하는 등 다양한 편찬 사업에 김수온을 참여시키고 있었다.

『사리영응기』는 형태적으로 대자 본문과 소자 쌍행주로 구성되어 있고, 본문은 김수온의 문집 『식우집』 권2에도 실려 있다. 쌍행주의 내용은 내불당의 규모, 「삼불예참문」, 9악장의 가시, 연행에 동원된 악기와 그 수, 점안식과 낙성식의 소문, 내불당 법회에 참석한 261명의 명단을 작성한 「정근입장인명」이 있으며, 이 쌍행주의 내용들은 『식우집』 소재 「사리영응기」에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사리영응기』 본문은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내용 상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불당 조영과 실무 관리자, 경찬법회 의식문과 연행 준비, 내불당 경찬법회의 준비 및 실행, 사리이적 출현 및 김수온의 평

13) 송일기·정왕근,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 『한국문화정보학회지』 49, 2015.

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의 형태로 「정근입장인명」이 수록되어 있다.

〈표 1〉 『사리영응기』 내용 구성

『사리영응기』 주요 내용		표기형태	『사리영응기』 수록여부
내불당 공사와 실무 관리자	내불당 조영의 전지와 관련업무 담당자	대자	○
	내불당의 규모	소자쌍행	
	불상 조성의 배경과 관련업무 담당자	대자	○
경찬법회 의식문과 연행 준비	삼불예참문	소자쌍행	
	친제신성 7곡과 9악장의 제목	대자	○
	각 악장 내용	소자쌍행	
	악공의 구성	대자	○
	연주에 동원된 악기의 수	소자쌍행	
	가무인원	대자	○
내불당 경찬법회의 준비 및 설행	11월 28일 궐내 재계	대자	○
	12월 2일 법회 참석 승려 입궐	대자	△(일부 수록)
	3일 불상 이운과 안치	대자	○
	4일 수양대군 행향	대자	○
	5일 점안	대자	○
	소문	소자쌍행	
	6일 낙성 법회	대자	○
	소문	소자쌍행	
사리이적과 김수온의 평	6일 저녁 세종의 사리 감응 발원과 사리출현	대자	○
	김수온의 사리 영응에 관한 총평과 시	대자	○
부록	정근입장인명	소자쌍행	

『사리영응기』는 세종이 내불당 조영의 뜻을 의정부에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세종은 문소전 옆에 불당을 지어 태조와 태종을 추복하고자 하였고 공사의 주요 업무 담당자를 임명하였다. 내불당의 규모는 총 26칸이며 공사는 7월 29일에 시작되어 11월 20일에 완료되었다. 내불당에는 태조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황금삼존불을 안치하고, 약사불과 미타불,



그리고 보살상과 나한상을 함께 조성하였다.

또 신미와 김수온에게 「삼불예참문」을 짓게 하였는데, 「삼불예참문」은 쌍행주로 실려있다. 「삼불예참문」은 의식문으로 내불당이 낙성되고 설행될 경찬법회를 위해 준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 「삼불예참문」의 작성을 명한 신미는 김수온의 형으로 당시 都大禪師의 승계와 대자암 주지라는 승직을 담당하는 등 승정체제에 속해 있는 승려이다. 또 법회에 참석한 승려의 이름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어 내불당 법회를 집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친제신성 7곡 仰鴻慈之曲, 發大願之曲, 隆善道之曲, 發大願之曲, 布法雲之曲, 演甘露之曲, 依定慧之曲과 9악장 歸三寶, 贊法身, 贊報身, 贊化身, 贊藥師, 贊彌陀, 贊三乘, 贊八部, 希冥資의 제목이 열거되어 있고 제목 아래에 5언 6구의 가시가 쌍행주로 삽입되었다.

계속해서 악공의 인솔자와 총감독의 임명, 악기 연주자 수 등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연주에 쓰인 악기들, 예를 들어 정동발 1, 소동발 2와 같이 악기명과 수효를 쌍행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다시 대자로 연행에 동원된 모才 인원을 역할과 인원별로 제시하고, 그들이 들고 있는 꽃의 색깔과 종류를 서술하였다. 법회에 동원된 악공은 모두 67명으로 이와 같은 상세한 기록은 내불당 법회 때 행렬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과 같다.

내불당이 완공되고 11월 28일 궐내재계를 시작으로 경찬법회를 준비하였다. 세종은 관리들에게 형의 집행을 금하게 하고 도살행위도 금하게 하였다. 12월 2일 신미와 탄주 등 승려 51인이 내불당에 모였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에게 법회를 위한 제반업무에 사람들을 배치하게 하였다.

경찬법회는 3일 불상을 이운하면서 시작되었다. 4일 수양에게 行香하게 하고 대군들이 입궐하여 奉香하였다. 5일에 점안을 마쳤고, 6일에는 낙성식을 하였다.<sup>14)</sup> 점안식과 낙성식에는 각각의 소문이 쌍행주로 삽입되어 있다. 점안·낙성의 두 소문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태조와 신의왕후, 태종

과 원경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점안소문에서는 문소전 불당을 철거하고 16년 만에 불당을 짓게 되었음을 고하고, 태조께서 조성을 시작한 황금삼존불의 완성과 양쪽에 약사여래상과 미타여래상 그리고 보살상과 나한상을 안치하였음을 고하였다. 낙성소문에서는 불당의 조성과정과 안치된 불상을 간략하게 전하고 약사경, 미타경, 관무량수경 등을 금사하여 옥함에 넣어서 불당에 안치하였음을 고하였다. 소문의 작성자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세종 24년에 흥천사 사리각 경찬법회 소문을 집현전 직제학 이선제에게 짓게 한 것에<sup>15)</sup> 미루어 볼 때 당시의 소문 작성을 집현전문사에게 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사리이적과 김수온의 평이 나온다. 낙성법회 날 저녁 사리이적이 출현하는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수온은 세종의 지극한 효성에 대한 감응이라고 평가하고, 관련하여 4언시 26구를 남겨놓았다.

『사리영응기』의 마지막은 「정근입장인명」으로 법회에 참석한 261명의 성명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정근입장인명」에는 법회에 참석한 승려 51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다. 승려들은 모두 都大禪師, 大禪師, 中德, 禪德, 大選(大禪)의 승계를 가지고 있고 승직으로는 判禪宗事, 判教宗事, 대자암 전·현직 주지, 개경사 전·현직 주지, 진관사 주지, 전 승가사 주지가 확인된다. 이들 승려들은 승과에 합격하여 승계가 제수되고 승직에 임명되었다.<sup>16)</sup> 해당 사찰들은 모두 세종 6년에 정비된 36사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당시 내불당 법회는 승정체제 소속의 승려들이 참

14) 내불당 경찬회 기사는 『세종실록』 권122, 세종 30년 12월 5일 정사조에 전하고 있다.

15) 『세종실록』 권95, 세종 24년 3월 12일 계유, “命集賢殿直提學李先齊 撰興天舍利閣慶讚疏文”

16) 조선 초기 승과 운영에 대해서는 양혜원, 「15세기 승과(僧科) 연구」, 『韓國思想史學』 62, 2019가 참조된다.

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려들 다음으로는 효령대군을 위시한 대군들과 부마 光德大夫 安孟聃의 이름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고, 鄭某, 閔伸 이하의 조정 관원들이 품계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외 賤人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sup>17)</sup> 특히 「정근입장인명」에 기록된 인명 가운데 한글로 표기된 경우가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정근입장인명」의 기록자는 『세종실록』의 기사를 통해 그 윤곽을 짐작할 수 있다. 세종 30년 12월 5일 법회가 끝나고 수양대군은 경찬법회를 그림으로 그렸고, 또 契文을 지어 법회에 참여한 인명을 열거하여 쓰고 두루마리로 만들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 일에 注書 成任도 참여하였다<sup>18)</sup> 이를 통해 정근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은 김수온이 아니라 수양대군과 성임인 것을 알 수 있다.<sup>19)</sup>

17) 『사리영웅기』에 천인신분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천인들의 이름이 활자화 되었고 모두 이름 앞에 ‘臣’字를 쓰고 있으며 대군에서 천인까지 동등한 입장에서 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주도한 인물은 수양대군으로 천인들이 이에 감동하였고 후에 계유정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이정주, 「세종 31년(1449) 刊 『舍利靈應記』 所載 精勤入場人 분석」, 31~32쪽).

18) 『세종실록』 권122, 세종 30년 12월 5일 경자, “會罷 首陽大君圖慶讚會 又製契文 列書與會人名 作軸分與之”

19) 또 「정근입장인명」의 표기 방식과 본문에서 인명 표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 또한 두 글의 작성자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문에서 인명을 표기할 때는 ‘中樞院使 臣 閔伸’, 승려를 기록할 때는 ‘판선종사 신 탄주’, 승직이 없는 경우는 ‘禪德 臣 某某’ 등으로 승계만을 쓰고 있으며 앞에 사람과 승계가 같은 경우 ‘臣 某某’로 이어서 쓰고 있다. 반면에 「정근입장인명」은 보다 자세히 쓰고 있는데 ‘資憲大夫 中樞院使 臣 閔伸’과 같이 품계-관직-성명을 기록하고 있고, 승명의 경우 ‘판선종사 도대선사 신 탄주’로 승직-승계-승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 승계를 가진 승명이더라도 각각의 승명 앞에 승계를 적고 있다. 즉 정근입장인 인명 기재 방식이 정근에 참여한 개개인에 대해 보다 성의 있게 쓰고 있어 법회 당일 날 나누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

이상에서 『사리영응기』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내불당 조영 및 불상의 조성, 경찬법회의 준비과정, 법회의 진행과 사리이적 등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일의 담당자, 의례에 동원된 인적 구성과 악기와 기구 등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사리영응기』는 내불당 경찬법회의 전반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문과 구별되는 쌍행주의 내용은 경찬법회 설행에 앞서 미리 준비된 각각의 글임을 알 수 있다. 신미와 김수온이 지은 경찬법회 의식문인 「삼불예참문」, 세종이 친제한 법회에서 연주 될 새 음악과 악장, 점안식과 낙성식의 소문 모두 내불당 경찬법회를 위해 작성되었다. 그리고 수양대군과 성임이 기록한 「정근입장인명」 또한 경찬법회가 있던 날 작성된 개별의 글이다.

『사리영응기』의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편찬과정을 유추해 보면 김수온이 『사리영응기』의 본문을 썼고, 이를 바탕으로 법회 때 쓰인 글들을 쌍행주로 삽입한 것이다. 즉 쌍행주에 해당되는 개별의 글들은 본문보다 먼저 작성되었고, 본문은 법회가 끝나고 김수온이 내불당 불사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리영응기』의 서술에 의하면 내불당 불사는 세종의 명에 의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의 명에 의해 공사가 시작되고 담당자가 임명되었으며, 신미와 김수온에게 「삼불예참문」을 짓게 하였고 직접 음악을 만들만큼 내불당 불사에 애정을 쏟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리영응기』는 세종의 명에 의해 김수온 등이 편찬하고 국가 소속 기관에서 금속활자본으로 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세종은 아마도 내불당 불사의 최종 작업으로 『사리영응기』의 편찬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왕명에 의한 불사의 기록은 세종 이전에도 있었다. 권근이 찬한 「演福寺塔重創記」, 「貞陵願堂曹溪宗本社興天寺造成記」, 「津寬寺水陸社造成記」는

불사를 일으키게 된 배경과 조성과정, 태조의 공덕에 대한 칭송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글들은 태조의 명으로 후세에 보이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리영응기』도 이 글들과 구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세종이 태조의 전례에 따라 『사리영응기』의 편찬을 명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리영응기』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찬법회 의례의 준비과정과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세종 28년(1446) 소현왕후의 승하 이후로 불서를 편찬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종은 죽은 왕후를 추복하기 위하여 수양대군에게 『釋迦譜』의 찬술을 명하였으며<sup>20)</sup> 같은 해 12월 세종은 김수온에게 『석가보』 증보·수찬을 명하였다.<sup>21)</sup> 이듬해 세종 29년 7월에 최초 훈민정음본인 『釋譜詳節』이 완성되었고, 『석보상절』을 본 세종은 찬불 악장인 『月印千江之曲』을 지었다.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의 정확한 편찬시기나 간행연도는 알 수 없으나 세종 29년 즈음에는 간행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sup>22)</sup> 이러한 불서들의 간행은 왕실의 권위를 선양하고 존엄을 표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찬술되었을 것이다.<sup>23)</sup> 『사리영응기』의 편찬 역시 이러한

20) 『월인석보』의 「어제 월인석보서」에는 세종이 수양에게 “薦拔無如轉經 汝宜撰譯釋譜”라 하였는데 이를 통해 『석보상절』이 소현왕후의 추복을 위한 전경법회에서 낭독하기 위해 편찬되었다는 견해가 제출되었다(김기중, 『한국고전문학과 불교』, 동국대학교출판부, 2019, 229쪽).

21) 『세종실록』 권114, 세종 28년 12월 2일 을미. 아마도 이때 김수온이 증수한 것은 수양대군이 찬한 『석가보』가 아닌가 한다.

22) 안병희, 「『月印千江之曲』」, 『국어사 문헌 연구』, 신구문화사, 2009, 242쪽.

23) 최병현, 「《月印釋譜》編纂의 佛敎史的 意義」, 『진단학보』 75, 1993, 223~224쪽. 이 연구에서 불교는 왕권의 강화와 권위 수식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불서를 제작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死者를 위한 追薦의 의미도 있지만 왕권의 권위 선양과 왕업의 과시, 민심 수습 등의 정치적 의도도 복합되어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불서 편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내불당 불사의 진행과 세종의 주요 담당자 임명

『사리영응기』는 내불당 불사의 전모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각각의 업무에 배치된 담당자에 대한 기록이다. 내불당 불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정근입장인명」에 기록되어 있고 이들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있어 참조된다.<sup>24)</sup> 기존 연구에서는 「정근입장인명」에 기록된 인물들의 역할을 분석하고 대군에서 천인까지 신분별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내불당 불사가 세종의 꼼꼼한 구상 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특히 대군들이 불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이 담당자 배치에서 의도한 바를 추적하고자 한다.

세종 30년(1448) 7월 18일 내불당을 경복궁 담장 밖에 세우겠다고 한 발 양보하였는데 신료들이 계속해서 반대하자 세종은 스스로 인원을 배치하겠다고 하며 선공제조 민신을 불러 역사를 일으키게 하였다.<sup>25)</sup> 세종은 불당 조영 뿐 아니라 각각의 업무에 책임자를 배치하였다. 먼저 『사리영응기』에 보이는 주요 업무별 담당자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 이정주, 「세종 31년(1449) 刊 『舍利靈應記』 所載 精勤入場人 분석」, 261명을 모두 넘버링을 해서 표로 만들어 부록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25) 『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 7월 18일 임인.

〈표 2〉 내불당 경찬법회 준비과정과 주요 담당자

주요 업무		담당자
내불당 조영	공사	총지휘 : 안평대군 주 관 : 정분, 민신, 이명민 등
	단청	총지휘 : 금성대군, 의창군 주 관 : 안견, 이양미 등
불상 조성		총지휘 : 안평대군, 임영대군 주 관 : 안견
연행단 인솔		총지휘 : 수양대군
		인솔 및 연습 : 박연, 김운산, 황귀존 등
불상 이운	공궐 영접	수양대군, 정효강, 안견, 김수은 등
	승봉 불상	효령대군, 금성대군, 임영대군, 영응대군, 안맹담(駙馬)
	행렬 인도	안평대군, 정분, 민신, 박연, 이사철, 이명민, 성임 등

내불당 불사의 준비과정은 내불당 조영, 불상 조성, 연행단 인솔, 불상 이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내불당 조영은 불당의 공사와 단청으로 나뉘어 담당자가 임명되었다. 불당의 공사는 安平大君이 총지휘를 하고 좌참찬 정분과 중추원사 민신을 위시로 하여 당시 선공감 직장인 李命敏과 군지휘관 權權, 邊大海, 내관 崔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분은 내불당 조영을 주관하기에 앞서 세종 29년 8월에 승례문 신축 공사의 감독을 맡았으며,<sup>26)</sup> 민신은 『사리영응기』에는 중추원사로 기록되어 있으나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7월 내불당 공사를 명할 때 직함이 선공제조였다는 점에서 중추원사와 선공제조를 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에는 “정분은 토목의 일에 재능이 있었고 민신은 부지런하고 조심성이 있어 조영하는 일이 있으면 이 두 사람에게 관장하게 했다”<sup>27)</sup>고

26) 『세종실록』 권117, 세종 29년 8월 30일 기축, “新作崇禮門 命左參贊鄭奉等 監督其役 奉專以土木之事爲己任 營繕相繼 先意承迎 財力匱竭”

27) 『세종실록』 권126, 세종 31년 11월 19일 을미.

하였는데, 이들이 대규모 공사를 자주 경험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명민 역시 민신의 인척으로<sup>28)</sup> 역사를 감독하고 준비하는 데 능력을 인정받아 세종은 그의 관직을 높여주고 역사를 감독할 일이 있으면 그에게 맡겼다.<sup>29)</sup> 이들은 선공감 소속의 관리들로 토목공사를 맡았던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내불당 건축에서 실무 책임자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불당의 단청은 錦城大君과 義昌君의 지휘 하에 安堅과 李揚美, 黃思義, 長吉生과 내관 李春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안건과 이양미에 관한 기록이 찾아진다. 당시 안건은 그림으로 알려져 있었고 내불당 불사가 시작되기 직전에도 세종이 「大小駕儀仗圖」를 그리게 한 일이 있으며,<sup>30)</sup> 후대 기록에 의하면 세종이 안건을 아꼈다고 한다.<sup>31)</sup> 이양미 역시 내불당 불사 1년 전 세종의 명을 받고 경기도 풍덕군에 있는 월암사에 단청을 맡은 일이 있는데,<sup>32)</sup> 이를 통해 세종이 단청에 능한 이양미를 다시 내불당 불사에 동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안평대군은 불상을 조성할 때도 자신의 바로 아래 동생인 臨瀛大君과 함께 일을 지휘하였고, 안건 역시 불상 조성에 실무자로 참여하였다. 불상은 誠寧大君의 집에서 주도되었는데, 성녕대군은 태종의 넷째아들로 태종 18년(1418)에 사망하였고 태종은 대자암을 창건하여 그의 원찰로 삼았다. 세종 28년 소현왕후가 승하하였을 때 여러 대군들이 어머니를 위하여 불경을 만들고자 하니 이를 성녕대군의 집에서 설행하도록 하고,<sup>33)</sup> 이후 완성된 불경을 대자암으로 옮겼다. 성녕대군의 집에서 불상을 주도하게 한 것 역시 앞서 불경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장소이자, 대자암과 밀접한 관

28) 『세종실록』 권105, 세종 26년 7월 25일 임신.

29) 『세종실록』 권127, 세종 32년 윤1월 20일 을축.

30) 『세종실록』 권119, 세종 30년 3월 5일 경인.

31) 『세조실록』 권30, 세조 9년 3월 10일 기해.

32) 『세종실록』 권117, 세종 29년 7월 25일 을묘.

33) 『세종실록』 권111, 세종 28년 3월 28일 을미.



계가 있는 장소로서 선택하였던 것이다.

법회에 쓰기 위해 작곡된 신성 7곡을 연주하고 춤과 노래를 부를 연행단을 인솔하고 연습시키는 일은 당시 음악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朴堧은 편경을 제작한 음악가로 잘 알려져 있고, 金允山과 黃貴存 역시 당대 저명한 악기 연주자였다. 또한 인솔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경찬법회에 참여한 악공 가운데 宋大平, 許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연행단에 정예의 악공들을 포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4)</sup> 이어서 세종이 만든 7곡의 악보를 받들고 이 연행의 총책임을 맡은 사람은 수양대군이였다.

이상에서 내불당 조영과 연행단 인솔에서의 주요 담당자를 살펴보았다. 내불당 건축과 단청 그리고 불상을 조성하는 실무에는 유경험자들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들이 임명되었다. 연행단을 인솔하고 연습시키는 데에는 당대 유명한 연주자들로 구성하였다. 즉 세종이 내불당 불사에 각각의 분야에 경험이 있으며 전문기술이 있는 자들로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세종은 불사의 준비과정에 내시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세종은 이들을 통해 일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sup>35)</sup>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일의 지휘자들로 대군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군들의 역할은 불상을 내불당으로 옮겨 안치하는 행렬에서 더욱 돋보인다.

내불당이 완공되고 12월 3일 불상 이운을 시작으로 법회가 시작되었다.

불당은 매우 화려하게 만들어졌다. 금과 구슬은 눈을 부시게 하고, 단청은

34) 『용재총화』 권1에서 황귀준과 송태평, 허오 등 당대 유명 연주자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리영응기』에 기록된 악공에 대한 연구는 김우진, 『『사리영응기』 소재 악공 연구』에 자세하다.

35) 이정주, 「세종 31년(1449) 刊 『舍利靈應記』 所載 精勤入場人 분석」, 142쪽.

햇볕에 빛났다. 붉은 비단으로 재봉하여 기둥에 입히니 柱衣라고 하는데 더러워지고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향나무를 새겨 산을 만들어 금부처 세 구를 그 안에 안치하였다. 그 금부처는 안평대군이 일찍이 성녕대군 집에서 감독해 만든 것이다. 近仗으로 하여금 관대를 갖추고 大駕를 호위하는 의식과 같이 수레가 궤내로 들어갔다. 친히 관람하신 뒤에 불당에 안치하였다.<sup>36)</sup>

위의 인용문은 내불당의 화려한 외관과 불상 이운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불상을 이운하는 것이 大駕를 호위하는 것과 같았다고 하는 것에서 불상 이운 행렬의 장중함과 그 위엄을 느낄 수 있다. 불상 이운은 내불당 법회의 서막을 여는 것으로 사리이적 못지않게 중요한 장면을 연출한다고 생각된다. 먼저 3일 새벽에 수양대군은 정효강, 안견, 김수온 및 내관들과 함께 궤에서 불상을 맞이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정효강은 세종 28년 소헌왕후를 위해 불경을 만드는 일을 주관하였고, 이 불경을 대자암으로 옮기고 설행하는 전경법회에도 참여하였다.<sup>37)</sup>

이어서 孝寧大君·임영대군·금성대군·永膺大君·부마 광덕대부 안맹담에게 명하여 불상을 모시고 가게 하였다. 불상은 세종이 일람하고 교태전을 지나 현무문을 통해 나갔고, 이때 기다리고 있던 연행단이 새 음악을 연주하였다. 연행단은 행렬의 뒤를 따르고 안평대군과 비구들 그리고 정분, 민신, 박연, 李思哲, 이명민, 성임 등과 내관들, 서반직 관원들이 행렬을 앞에서 인도하였다. 이사철은 내불당 불사를 반대한 인물이었으나 도승지의 자격으로 법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성임은 승정원주서로 참여하

36) 『세종실록』 권122, 세종 30년 12월 5일 정사, “佛堂成 設慶讚會 凡五日而罷 佛堂制作 窮極侈麗 金珠眩目 丹青耀日 以絳綃裁縫被楹 謂之柱衣 以防污毀 刻香木爲山 安黃金佛三軀于其中 其金佛 安平大君嘗監鑄于誠寧大君第 令近仗具冠帶 如衛大駕儀輿入于內 親賜觀覽 然後安于佛堂”

37) 『세종실록』 권111, 세종 28년 3월 28일 을미 ; 권112, 세종 28년 5월 27일 갑오 ; 권114, 세종 28년 10월 15일 기유.

여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양대군과 함께 「정근입장인명」을 작성하였다.

불상 이운은 어가의 행렬을 방불케 했다. 왕실의 구성원, 특히 세종의 친형 효령대군과 소헌왕후 소생의 대군과 부마가 불상을 모시고 갔고, 수양과 안평대군은 불상을 맞이하고 행렬을 인도하는 등 왕실 구성원이 중추가 되어 불상 이운의 장중하고 위엄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불상 이운의 과정에서 대군들의 역할은 세종의 명에 의해 분담되었다. 이를 통해 불상을 이운하는 과정에서 왕실의 구성원들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이 불사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 바로 왕실의 구성원임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 세종은 이를 통해 왕실의 위엄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왕실의 구성원을 전면에 내보이며 왕실의 안정과 화합을 보이는 자리에서 세자(후의 문종)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문제에 대한 세종의 뜻은 문종이 즉위 후 집현전 부제학 辛頤祖와 나눈 대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임금(문종)께서 말하였다. “내가 성현의 글을 읽고 이미 이단의 그릇된 점을 알고 있다. 또 세종께서 나에게 전교하신 일이 있는데 ‘이단의 일은 하루라도 천하 국가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만일 부득이하게 불사를 설행할 일이 있으면 대군과 제군에게 명하여 주관하게 하라’고 하셨다. 나에게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지금 추천하는 일 또한 풍속을 따를 뿐이니 삼년이 지나면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sup>38)</sup>

신석조는 문종에게 정학을 높이고 이단을 배척하여 재위 초반 정사에 힘써야 함을 간언하였다. 이에 문종은 지금 불사를 행하는 것은 세종의 천도를 위한 것일 뿐 삼년상이 끝나면 불사를 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세종이 세자 시절 자신에게 전교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세종의 뜻은

살펴보면 국가를 통치하는 데 이단의 일, 즉 불교를 배제하고, 부득이하게 불사를 설행할 경우 대군과 여러 군에게 맡기게 하였다. 즉 세종은 국가를 다스리는 정무와 왕실 내 불사를 구분하고자 하였으니, 이는 왕실불사에 대한 신료들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방편이었을 것이다. 또한 대군들에게 활동 공간을 넓혀주고 왕실의 일익으로서 소임을 부여하는 뜻도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문종은 세종의 유훈대로 대군들이 불사를 주도하게 하였다. 대자암을 중축하고 세종의 명으로 시작된 금자화엄경 사경을 마치고자 하였는데 이 일은 안평대군이 주도하였다.<sup>39)</sup> 또 문종 즉위년 7월에는 안평대군과 좌찬성 정분·예조판서 허후·병조판서 민신·이조참판 이사철·도승지 이계전에게 진관사를 고쳐 짓는 일을 가서 보게 하였다.<sup>40)</sup> 문종 1년 9월에는 안평대군에게 중창이 끝난 복천사를 보고 오게 하였고,<sup>41)</sup> 문종 2년 3월 密城君 李琛의 병이 위독해지자 안평대군에게 명하여 흥천사에 가서 승려를 모아 기도하게 하였다. 이처럼 문종은 세종의 유훈을 토대로 왕실불사를 설행하였다. 이로써 왕실불사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대군들 역시 왕실불사를 통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38) 『문종실록』 권3, 문종 즉위년 8월 26일 정유, “上曰 予讀聖賢之書 已知異端之非 且世宗嘗教予曰 異端之事 不可以一日治天下國家 若有不得已佛事 則命大君諸君主之 使予不得與焉 今薦拔之事 亦從俗耳 三年之後 則斷不可爲也”

39) 『문종실록』 권1, 문종 즉위년 2월 18일 계사.

40) 『문종실록』 권2, 문종 즉위년 7월 10일 임자.

41) 『문종실록』 권9, 문종 1년 9월 5일 경자.

#### IV. 내불당 경찬법회의 사리이적과 왕실불사의 전통

왕실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불상 이운을 마치고, 4일 세종은 수양대군과 영웅대군에게 불당에 봉향을 명하였다. 5일에는 점안식을 하였고, 6일에는 낙성식을 올렸다. 6일 저녁 세종은 안평대군과 영웅대군에게 명해 곤룡포 두 벌과 침수향 한 봉을 불당에 봉헌했다. 불당에 공양물을 봉헌하는 일 또한 대군들의 손을 이용하였다.

이날 저녁 (임금께서) 안평대군 용과 영웅대군 염을 불러 명하였다.

“너희들이 곤룡포 두 벌과 침수향 한 봉을 받들어 세존께 가서 바치거라.”

또 신미와 한 자리에 모인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효성이 어찌 감히 부처의 마음에 이를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바라건대 여러 사람의 힘에 의지하여 감응을 볼 수 있다면 세상을 떠난 사람을 천도하는 마음에 또한 만족스럽지 않겠는가? 사리를 구하고자 하니 오늘이 아니면 언제 다시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밤에만 가능하니 정성을 다하여 간절하게 구하라.”<sup>42)</sup>

세종은 법회에 참여한 신미 외 50인의 비구와 대중들에게 자신의 효성에 감응하여 사리감득이 있기를 바라면서 정근을 당부하였다. 사리는 고대에서부터 왕권의 강화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물로서 신앙되어 왔다. 고려후기 정근을 통하여 사리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성행하였는데 당시에는 승려들이 정근을 하면 통도사 진신사리가 분신한다는 것이 사리

42) 『사리영웅기』, “是夕 召瑠琰命之曰 汝等奉袞龍袍二件 沈水香一封 往獻世尊 且謂信眉及一會大眾曰 予之孝誠 豈敢自謂能格于佛鑑耶 然冀憑衆力 獲觀感應 則不亦滿足於薦往之心乎 欲求舍利 不於今日 更須何時 可於今夜 精勤懇乞”

분신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분신사리신앙은 변형되어 일반인들의 기도에서도 사리를 감득할 수 있으며, 종교적 순수성보다 불사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출되기도 하였다.<sup>43)</sup> 이날의 사리감득에 대해 『사리영응기』와 『세종실록』의 기록을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사리영응기』: 이러는 사이에 안팎의 四衆들이 모두 불전 위에 빛이 난다고 말하고는 위쪽을 가리키며 빛을 바라보고서 지극한 마음으로 절하였다. 신이한 향기가 더욱 퍼졌고 내외에서 모두 냄새를 맡았다. 드디어 사리탑 앞에 보자기 쪽으로 가서 보니 사리가 이미 權身 두 립이었고 촛불로 비추어 보니 둥글고 투명하였으며 광채가 매우 뛰어났다. 모인 대중들은 절하거나 울거나 하면서 경외심이 일어나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에 감탄하며 “우리들은 毗盧遮那無上世尊을 볼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세월에 쌓인 업이 모두 다 소멸되었다. 우리 부처 여래께서 일체를 가엾게 여기시어 이러한 상서를 나타내셨으니 오로지 성상의 지극한 정성에 감응하신 것이다.”하였다.<sup>44)</sup>

『세종실록』: 정분, 민신, 이사철, 박연, 김수온은 여러 승려들과 섞여 뛰고 빙빙 돌았지만 밤낮을 그치지 않고 땀이 나와 몸을 적셔도 거의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이명민이 한 명의 관리와 외치기를 “한창 정군을 하는 때에 문 밖으로 나와 보니 사리가 빛을 내었는데 빛이 불씨와 같았다. 그 가운데에는 흰 연기가 있었고 질게 맺힌 물방울이 떨어졌는데 진주같았다”고 하였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비웃으며 말하기를 “진실로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문

43) 김혜완, 「고려후기 불사리신앙」, 『역사와 현실』 91, 2014.

44) 『사리영응기』, “如是之間 中外四衆 皆言殿上放光 指仰觀賞 至心膜拜 異香彌布 內外咸聞 遂進見舍利塔前 舍利已權身二粒 挺燭以映 勻圓整徹 光曜逸發 一會大眾 且拜且泣 生希有心 歎未曾有 讚言 我等得見毗盧遮那無上世尊 曠劫積業 皆悉消滅 我佛如來憐憫一切 故現斯瑞 專是聖上至誠所感 稽首禮拜 深心仰對 卽聞于上”

밖에 있던 이명민만 홀로 보았고 당 내의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을까?” 하였다.<sup>45)</sup>

『사리영응기』에서 말하는 사리이적은 放光과 異香 등의 상서를 동반하며 이적을 예고하였다. 그리고 사리가 나타나는 순간보다는 사리가 이미 나타난 후에 둥글고 광채가 뛰어나다는 사리에 대한 감상을 전하고 있다. 정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신이한 체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세종실록』에서는 냉정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이명민과 내관 한 사람이 사리가 나타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데, 이들만이 그 상황을 목격할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세종실록』의 내용을 통해 보건대 내불당 조영을 담당한 이명민이 사리이적을 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리이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처음 사리가 2매가 나타난 저녁에 떠들썩하게 말하기를 사리가 분신하여 4매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다음날 과연 4매를 얻었다”<sup>46)</sup>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2매의 사리가 다시 한번 분신하는 이적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근에 참석한 대중들은 사리의 출현이 세종의 지성에 대한 감응이라고 말하였고, 김수온 역시 이를 세종의 지극한 효성에 감응한 것이며 세종의 德化로 일어날 수 있었다고 칭송하고 있다.

내불당 경찬법회에서 출현한 사리이적은 내불당 불사가 세종의 구상

45) 『세종실록』 권122, 세종 30년 12월 5일 정사, “笨伸思哲朴堧金守濫雜於群僧 踴躍周匝 不徹晝夜 汗出渾身 略無倦色 命敏與一宦者宣言 方精勤時 出門顧見 舍利放光 光如火焰 中有白氣 濃結滴落 若真珠 然聞者譏之曰 誠有是歟 何故在門外命敏獨見 而堂內衆人 未之見也”

46) 『사리영응기』, “卽聞于上 上遣湏奉袞龍段二匹綵帛二匹 獻設利羅 卽以香花音樂 種種供具 恭敬供養 歡喜之慶 何能盡述 神光照映 罔間遐邇 普佛世界 同一慶幸 封殿以退 至翼明又得二枚 合四枚矣”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세종의 계획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세종이 법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사리감득을 당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사리이적의 진위여부보다 세종이 왜 사리이적을 경천법회에서 활용했는가에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조선왕실에서 설행한 불사에서 사리가 분신하는 이적이 내불당 경찬법회 이전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태상왕께서 정릉사 탑전에서 7일간 불사를 베풀었는데, 사리 4매로 분신하였다. 태상왕은 유동에 불당을 지어 사리를 봉안하였다.<sup>47)</sup>

예전에 태조가 속설에서 석가가 세상에 계실 때에 치아에서 나온 사리 4매와 두골, 패엽경, 가사라고 전하는 것을 흥천사 석탑에 안치하셨다. 이때에 이르러 환자 김용기에게 명하여 밤에 석탑에 가서 내불당으로 옮겨 안치하고 석가 두골에서 생긴 사리 4매를 탑에 바꾸어 놓게 하셨다.<sup>48)</sup>

황엄이 원숙 등에게 사리가 온 곳을 묻자 “속설에 전하는 말이 석가가 세상에 계실 때에 치아에서 생겨난 것인데 신라승 자장이 서역에 들어가 문수보살을 뵈고 이것을 얻어 돌아왔다. 이것을 경상도 통도사에 안치하였는데 병자년에 우리 태조께서 이곳에 가져와 안치하셨다”고 대답하였다.<sup>49)</sup>

47)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4월 18일 계축, “太上王設佛事於貞陵社塔殿凡七日 舍利四枚分身 太上王作佛堂於楡洞 以安舍利”

48)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8월 23일 을미, “初 太祖以諺傳釋迦在世時 齒生舍利四枚 及頭骨貝葉經袈裟 置于興天寺石塔 至是 命宦官金龍奇夜就石塔 移置內佛堂 以釋迦頭骨所生舍利四枚 換置於塔”

49) 『세종실록』 권5, 세종 1년 9월 1일 계묘, “儼問肅等以舍利來處 答以諺傳釋迦在世時 齒上所生 新羅僧慈藏入西域見文殊 得此而還 置于慶尚道通道寺 歲丙子 我康獻王取置於此”



정종 2년에 태상왕(태조)이 흥천사 사리탑에서 설행한 불사는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어 범회의 목적은 알 수 없지만 이때 분신한 사리에 대해서는 추적이 가능하다. 黃儼과 元肅의 대화를 보면 흥천사 석탑에 있었던 사리는 통도사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옮겨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곧바로 흥천사로 온 것은 아니었고,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을 피해 개경 송림사로 옮겨 두었던 것을 다시 태조 5년 흥천사로 옮긴 것이었다.<sup>50)</sup> 이 진신사리는 세종 1년까지 흥천사 사리탑에 봉안되어 있었으므로 정종 2년 태상왕이 설행한 불사에서 얻은 분신사리는 통도사 진신사리에서 생겨난 것이다.

한편 세종은 흥천사 석탑에 안치되어 있던 진신사리와 두골 등을 내불당으로 옮기고, 대신 부처의 두골에서 생긴 사리 4매를 흥천사 석탑에 안치하게 하였는데 이 ‘釋迦頭骨所生舍利四枚’는 정종 2년에 태상왕 이성계가 흥천사 범회에서 얻은 분신사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사리를 바꾸어 안치한 것은 명 사신 황엄이 칙명으로 사리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이 이 말을 듣고 사리를 바꾸어서 진신사리를 지키고자 한 것이다. 즉 세종은 재위 초기부터 태조 대 시행되었던 사리이적과 사리가 가지는 상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내불당 경찬법회의 사리이적은 두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나는 사리가 가지는 상징을 이용하여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대왕실로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으로 왕실의 신성성을 담보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사리를 이용하여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 다른 점은 세종이 단절되었던 사리분신을 재현함으로써 ‘사리분신’

50) 『태조실록』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볼 수 있다. 『태조실록』 권9, 태조 5년 2월 22일 경술, “佛頭骨捨利菩提樹葉經 舊在通度寺 因倭寇移置留後司松林寺 遣人取來”

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경찬법회에서 사리분신을 재현하면서 그동안 잊혔던 사리분신의 전통을 되살리고, 향후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리'가 이용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측면은 문종의 불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세종은 세자 시절의 문종에게 국가 정무와 왕실불사에 관한 일을 구분하고 대군들과 같은 왕실 구성원을 이용해서 왕실불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종은 세종의 유지를 받들어서 왕실불사를 진행해나갔다.

문종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세종을 기리는 일이었다. 문종 즉위 직후에 안평대군이 대자암 무량수전의 증축을 건의하였고, 문종은 해당 사안에 대해 승정원에 의논하였다.<sup>51)</sup> 이후 조정 대신들과의 의논을 통해 대자암 증축을 강행할 조짐이 보이자<sup>52)</sup> 바로 다음 날 사헌부 장령 鄭之夏가 반대하며 나섰다. 정지하는 불경을 인쇄하는 일이 대행왕의 명령이고 대자암을 고쳐 짓는 일을 대신들과 의논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리에 어긋난다면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종은 병환 때문에 불사를 행한 것이므로 문종이 추진하는 불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정지를 요구하였다.<sup>53)</sup> 이에 문종은 선왕의 뜻을 폐지할 수 없음을 내세워 불사를 강행하였다.

결국 대자암 무량수전의 증축은 진행되었고, 그 이름도 극락전으로 바뀌게 되었다. 문종은 그 증축을 정분과 민신에게 주관하게 하였고 불경과 불상은 궁중에 工匠을 모아 놓고 조성하게 하였다. 또한 부지돈녕 姜希顔·정랑 李永瑞·주부 성임·사용 安惠·승려 7인에게 명하여 泥金으로 불경을 사경하게 하였고 도승지 이사철에게는 발문을 쓰게 하였다.<sup>54)</sup> 이

51) 『문종실록』 권1, 문종 즉위년 2월 18일 계사.

52) 『문종실록』 권1, 문종 즉위년 2월 26일 신축.

53) 『문종실록』 권1, 문종 즉위년 2월 27일 임인.

54) 『문종실록』 권1, 문종 즉위년 4월 10일 계미.

때 이영서와 강희안은 세종 28년 소헌왕후가 승하하고 대군들이 어머니의 추전을 위해 불경을 만들었을 때, 세종의 명에 의해 金字로 불경을 쓰는 일을 맡았던 적이 있다.<sup>55)</sup> 성임은 세종의 내불당 불사에 참여한 인물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또 정분과 민신은 세종의 내불당 불사에 이어 다시 대자암 무량수전 증축공사에 책임을 맡았다. 즉위 초 문종은 선왕 세종의 불사에 참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세종을 추복하는 불사에 참여인원을 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자암 극락전은 9월 17일 완공되었고 이날 도량이 크게 설행되어 수양 이하의 대군, 제군들이 참석하였다.<sup>56)</sup> 하지만 대자암 불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9월 19일) 수양대군 등이 대자암에서 아뢰기를 “사리분신정근을 설행하십시오” 하였다. 도승지 이계전에게 명하여 대자암에 가게 하였더니 분신사리를 수매 얻었다.<sup>57)</sup>

대자암 불사가 설행하고 이틀 후 수양대군은 사리분신을 위한 정근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분신사리를 수매 얻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상의 대자암 증축의 발의로부터 사리이적까지의 진행을 살펴보면 내불당 법회를 방불케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종은 선왕 세종의 유훈처럼 왕실의 구성원들을 불사의 책임자로 세우고, 세종 대부터 세종의 불사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을 담당자로 배치하여 불사를 강행하였다. 또한 세종 대에 다시 재개되었던 사리이적을 재현함으로써 왕실불사가 가지는 위엄을 보이

55) 『세종실록』 권111, 세종 28년 3월 28일 을미.

56) 『문종실록』 권3, 문종 즉위년 9월 17일 무오.

57) 『문종실록』 권3, 문종 즉위년 9월 19일 경신, “首陽大君等 在大慈菴啓曰 請設舍利分身精勤 命都承旨李季甸往焉 得分身舍利數枚”

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는 세종 대 일으킨 왕실불사를 문종이 계승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후로도 불사와 사리이적 등에 대한 신료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특히 鄭麟趾와 金文起 등은 즉위 초부터 불사를 일으키고 사리분신의 이적을 연출하는 문종을 경계시키기 위해 사리가 분신하는 것은 물성일 뿐 영이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숭신하지 말 것을 아뢰었다. 하지만 문종은 자신이 “불교를 숭상하지 않으며, 세종을 천도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불교식 의례를 행했을 뿐”이라고 대답을 회피하였다.<sup>58)</sup> 이 말은 언뜻 유신들의 공세에 문종이 물러선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왕실 내 불사에 유신들이 간섭할 수 없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세종의 계획 하에 선행된 내불당 불사를 『사리영응기』를 통해 살펴보았다. 내불당 불사는 재위 말기 일신상의 불행으로 불교를 숭신하게 된 세종이 일으킨 불사라고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국 당시부터 유교이념을 표방하였던 조선에서 국왕의 지위에 있었던 세종의 입장을 생각할 때 단순한 개인적 신념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종은 국초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비해 나가는 정책 방향에서 국가체제의 하나인 승정체제를 정비하였고 祀典을 정비하면서 국상과 제례에서 불교식 의례를 간소화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불교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불교를 국가제도의 틀 속에 존속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다. 세종

58) 『문종실록』 권3, 문종 즉위년 10월 20일 경인.

대 진행된 왕실불사 또한 국가제도 상에서 진행되고 있었기에 유신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불교의 오랜 전통은 쉽게 뿌리 뽑을 수 없었으며 왕권과 왕실의 위상 강화를 위한 불교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세종 30년 내불당 불사는 세종의 구상 하에 진행되었고, 내불당 불사의 전모를 기록한 『사리영웅기』는 세종이 그린 왕실과 불교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먼저 『사리영웅기』가 세종의 명에 의해 편찬되었음을 검토하였다. 내불당 불사는 세종의 기획 하에 진행되었으며 『사리영웅기』의 편찬은 내불당 불사의 마지막 단계였다. 세종은 김수은 등에게 내불당 경찬법회를 위해 미리 준비된 글을 가지고 편찬하게 하고 이를 유사에 명하여 금속활자본으로 간행하게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사리영웅기』는 단순히 내불당 불사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문헌적 전거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소헌왕후 승하 이후 간행되었던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등과 연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불서들은 왕실의 권위를 현창하는 도구로서 세종의 기획 하에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는 세종의 치세 말기에 제작되었던 『용비어천가』와도 그 성격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내불당 불사에 세종이 참여시킨 인원을 분석하였다. 세종은 불당 공사와 연행단을 인솔할 관원을 직접 임명하고 대군들에게 각각의 업무를 분장하여 총감독하게 하였다. 이때 임명된 사람들은 관련 업무에 유경험자로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인력이었다. 내불당 중건에서 대미를 장식한 것은 불상 이운 행렬이었다. 세종은 신곡을 만들어 불상을 불당에 안치할 때 연주하도록 하였고 불상 이운 행렬의 중심에는 효령대군과 세종의 다섯 대군 그리고 부마가 배치되었다. 세종은 왕실 구성원을 불사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왕실의 위엄을 천명하는 효과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또 세자에게 국가 정무와 왕실불사를 구분하고 대군과 여러 군에게 왕실

불사를 맡기라는 뜻을 전하여 왕실 구성원이 불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통과 유신들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책까지 마련해 주었다. 이에 대군들 역시 왕실불사를 통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끝으로 내불당 법회에서 연출된 '사리이적'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하나는 세종이 사리가 지니는 상징성을 명확하게 인지하였고, 이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측면은 세종이 태조의 전례를 답습하여 사리이적을 연출하였고, 이로 인해 끊어졌던 사리이적의 전통이 후대에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를 계승하는 모습을 문종에게서도 볼 수 있었다.

세종은 왕실의 전통과 효의 실행을 명분으로 내불당 불사를 대대적으로 설행하였고, 『사리영응기』 편찬을 통해 불사의 전모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의 왕실불사 전통을 계승한 것이자 이후 왕실불사 전통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조선전기 왕실불사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2019.11.09. 투고 / 2019.12.09. 심사완료 / 2019.12.09. 게재확정)

[Abstract]

A Study on the Compilation of *Sariyeongeunggi*(『舍利靈應記』)  
in the Reign of King Sejong and the Tradition of Buddhist  
Services in the Royal Family

Park, Sun-kyung

This study was reviewed through *Sariyeongeunggi* of Buddhist Projects of Naebuldang at 30th year of King Sejong(1448). It was done to understand King Sejong's intention to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the foundation of a nation as a king rather than to be treated by King Sejong's personal faith of Buddhist Projects of Naehuldang. King Sejong had Kim, Su-Ohn compile *Sariyeongeunggi* and this was published in Printed with Metal Type by commanding it as national organization. Compiling *Sariyeongeunggi* was considered as a tool to promote the authority of royal family under plan of King Sejong. King Sejong also closely prepared the person in charge. He arranged an expert in each work and had the princes from the legal queen supervise it. And the royal family members were appointed in middle of the moving parade of spectacle and sacred statue of the Buddha. He excluded the successor to him from the Buddhist Services of Naebuldang. He thought out a plan not to be criticized by bureaucrats who studied Confucianism and for the royal family to traditionally participate in the Buddhist Projects by delivering the manual to him to conduct the Buddhist Services. Finally 'miracles of sarira incarnation'

emerged from Gyeongchanhoe Buddhist ritual of Naebuldang clearly recognized the sarira that King Sejong followed as a symbol come from the ancient royal family and King Sejong aimed at enhancing royal authority through it. He got foothold to pass down the tradition of Buddhist Projects that was cut off for imitating the precedent of King TaeJo to descendants. We could see the succession of this from the era of King Moonjong.

□ Keyword

*Sariyeongeungi*, Buddhist Services, Naebuldang, sarira, Daejaam



[참고문헌]

1. 사료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문종실록』  
『동문선』 『사리영응기』 『식우집』 권2 「사리영응기」 『용재총화』

2. 단행본

금장태, 『세종조 종교문화와 세종의 종교의식』, 한국학술정보, 2001.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박정미, 『조선시대 佛敎式 喪·祭禮의 실행양상: 왕실의 국행불교상례와  
사족의 봉제사사암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집부, 『역주 월인석보』 제1·2, 세종대왕기념사업  
회, 1992.  
이종찬, 『역주 사리영응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  
최재복, 『조선초기 왕실불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10.  
한우근, 『유교정치와 불교』, 일조각, 1993.

3. 논문

김기중, 「『사리영응기』 소재 세종의 “친제신성(親制新聲)” 연구」, 『泮矯語  
文研究』 37, 2014.  
김우진, 「『사리영응기』 소재 악공 연구」, 『한국음악연구』 15, 2009.  
김종명, 「세종의 불교관과 유교정치」, 『불교학연구』 25, 2010.  
김혜완, 「고려후기 불사리신앙」, 『역사와 현실』 91, 2014.  
부남철, 「세종의 불교신앙과 유교정치」, 『세종의 국가경영』, 지식산업사,  
2006.

- 박범훈, 「世宗大王이 創製한 佛教音樂 研究: 舍利靈應記를 중심으로」,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6, 2002.
- 박세연, 「朝鮮初期 世祖代 佛教의 祥瑞의 政治的 意味」, 『사충』 74, 2011.
- 손성필, 「寺刹의 혁거, 철훼, 망폐: 조선 태종·세종대 승정체제 개혁에 대한 오해」, 『진단학보』 132, 2019.
- \_\_\_\_\_, 「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 1406년과 1424년 승정체제(僧政體制) 개혁의 이해 방향과 관련하여 -」, 『한국사연구』 186, 2019.
- 송일기·정왕근,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49, 2015.
- 송혜진, 「『사리영응기』 소재 「삼불예참문」과 세종친제 불교음악」, 『동양예술』 30, 2016.
- 양혜원, 「15세기 승과(僧科) 연구」, 『韓國思想史學』 62, 2019.
- 이정주, 「世祖代 후반기의 불교적 祥瑞와 恩典」, 『민족문화연구』 44, 2006.
- \_\_\_\_\_, 「세종 31년(1449) 刊 『舍利靈應記』 所載 精勤入場人 분석」, 『고문서 연구』 31, 2007.
- 최병헌, 「《月印釋譜》 編纂의 佛教史的 意義」, 『진단학보』 75, 1993.